

2020 새 설계

이승욱 강진군수

“양질의 일자리 창출·체류형 관광지 개발...강진 도약 이끌 것”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힘을 쏟겠습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군정의 최대 목표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강진산단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취업1번지 강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군수는 “산단 가동을 본격화 해 국민 우선 채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 확충과 우수 인력 채용 등 기업과 구직자간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역 전반에 기업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진군 일자리 종합안내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국민 일자리 제공에도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 군수는 올해를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여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의 전환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가우도 일대는 민자 유치로 통해 남해안의 거점 관광지로 개발하고, 강

진만 생태공원과 지방 정원도 특색 있게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학생 위주로 운영해 오던 푸소(FU-SO)체험을 일반인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최근 맛 기행 트렌드에 맞춘 특색 있는 단품 요리 개발로 맛의 1번지 강진의 명성을 이어나가는 한편 몽마르르 언덕, 하멜촌 조성 등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월출산관 관광 명소화를 통해 강진을 남도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공과 유통에 역점을 둔 농업 정책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이 군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비 품종인 ‘새정무’를 우리 군의 고품질 브랜드쌀로 선정·재배하고, 전통술과 떡류 가공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강진군직거래센터를 중심으로 농어업 생산자단체와 농·수·축협 간 협

력체계를 강화하고, 고령고객 8만 여명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 수출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수국을 비롯한 장미 등 고소득 시설원에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애플망고, 사인머스켓, 체리 등 미래 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도 총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기반시설으로, 모든 지역에 고루 잘 사는 강진군 만들기에도 본격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 공공임대주택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앙로상가와 연계한 구도심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으로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이 군수는 “어르신들의 적성과 능력을 감안하여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초고령화 시대, 백세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다”며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자립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 교육을 위한 최적

2020년 주요 사업은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객 500만명 달성, 체류형 관광지 조성
- ▲모든 지역에 고루 잘 사는 강진군 만들기 박차
- ▲푸소체험 일반인으로 확대
- ▲미래 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 확대

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군민안전보험 가입, 100원 마을택시 확대, 1000원 농어촌버스,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 등 교통복지 분야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것은 행정의 몫이지만,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아이와 부모, 어르신, 농어업인, 소상공인 모두가 잘 사는, ‘더불어 행복한 강진’ 실현을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2020년 또한 함께 희망찬 강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공모 선정



강진군 달빛한옥마을

강진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한옥 숙박시설대상 ‘2020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군은 올 한해 동안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전통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관광콘텐츠

를 제공하게 된다. 어른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고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며,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옛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전통한옥 숙박시설이 지역 향토자원의 경쟁력 확보와 강진군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유도해 관광객들에게 큰 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0년은 강진군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여는 원년의 해인 만큼 전통한옥 숙박시설을 통해 체류형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강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63%로 전남에서 가장 높아

강진군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남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에 따르면 경지면적 1만2338ha의 63%인 7802ha가 재해보험에 가입, 경지면적 대비 도내 22개 시군에서 가장 높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동해 등 이상 기후에 따른 각종 피해를 적절하게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협에서 시행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는 국비로 50%를 지원한다. 도비 10%, 군비 20% 지원, 농업인 부담분이 20%로 강진군에서는 2019년 8억7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했고, 농협에서 농업인 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했다.

재해보험비 가입비 지원은 총 43억원으로 국비 21억3000만원, 도비 4억3000만원, 군비 8억7000만원, 농업인 부담금 8억7000만원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 등 기상여건으로 폭염, 가뭄, 태풍, 병해 등 농업재해가 증가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도시재생 청년 아이디어 캠프 성황리 마무리



강진군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도시재생 청년 아이디어 캠프가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사진)

이번 행사는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마을게스트하우스와 청년안테나숍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역 청년들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함께 기획하는 등 주민참여 도시재생을 위해 마련됐다.

20여명의 참가자는 도시재생 특강과 사업 대상지 현장답사, 팀별 아이디어 회의, 전문가 멘토링

을 통해 마을게스트하우스와 청년안테나숍, 여행자라운지 등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을 도출해냈다.

무박 2일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밤샘 토론을 이어가는데 등 과제 수행에도 열의를 보였다.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이디어 캠프를 통해 도출된 주민과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